

초등생들이 ‘5·18 다큐 관람’ 후원금 마련

‘전두환 물리가라’ 외친 동산초교·지산2동 주민協 모금
동구에 전달…조대부속중 130명 영화 ‘김군’ 관람 기회

“더 많은 시민들이 광주 5·18을 알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정에 출두하는 전두환씨를 향해 ‘물리가라’를 외쳤던 광주 한 초등학교 학생들과 이 학교 소재 마을 주민들이 5·18 다큐멘터리 영화 관람 참여와 후원금까지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동산초등학교 재학생과 지산2동 지산마을주민협의 회로부터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받았다. 동산초교와 지산마을주민협의회는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기념해 지난 16일 동산초 대강당에서 영화 ‘김군’ 시사회를 열었다. 시사회에 참가한 학생과 주민들은 영화 ‘김군’을 더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실시할 만 있다고.
이들이 동구에 맡긴 후원금은 28일 광주극장에서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1학

년 재학생 130여명을 초청해 ‘김군’ 단체관람에 쓰인다.
조대부중 1학년 전원은 계기수업으로 이뤄지는 이날 오전 영화 관람을 통해 5·18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기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후원금이 모이게 된 계기는 동산초교·지산2동·‘김군’ 영화제작사 관계자들이 시사회 전에 이야기를 나누며 비롯됐다. 5·18 역사 왜곡 및 편협해 SNS 상에서도 팽배한 만큼 이에 따른 광주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라도 더 많은 관람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에 5·18 당시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많고, 주요 무대인 금남로와 가까운 조대부중 측에 이야기가 전달, 영화 관람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모금의 중심이 된 동산초교는 동

구 지산2동 광주지방법원 맞은편에 자리해 지난 3월11일 학생들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두하는 전씨를 향해 “전두환은 물리가라”를 외쳤다.
학생들은 학교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과거 시위 현장에서 불렀던 ‘홀라 송’에 맞춰 구호를 외쳤다. 당시 동산초교 학생들의 외침에 5·18 유공자 및 희생자 유가족들은 고마움을 표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동산초교는 1987년 6월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정문 앞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신군부의 독재 타도를 외치던 중 최루탄에 맞아 희생돼 6월 항쟁의 도화선이었던 고(故) 이한열 열사의 모교이기도 하다.
하지만 보수를 표방하는 일부 단체는 이후 학교 앞에서 항의성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광주 동구는 지산2동으로부터 모금을 위탁받아 광주극장에 조대부중 1학년생들이 관람하는 영화관람료를 대신 전달한다.

이안수 지산2동장은 “시사회 당시에도 모금함을 설치하자는 이야기에 부모님 손을 꼭 잡고 모금에 참여한 동산초교 어린이들과 심시일반 도을 추진 지산2동 지산마을주민협의회와 주민들 덕분에 더욱 의미 있는 5월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모금함 전달식에는 참석치 못했던 공동제작을 맡은 영화제작사의 최낙용 대표는 “현재 전국 3천여 극장 중 100여 곳서 상영을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시작인 광주에서 5·18을 알리기 위해 주민들 손으로 관람비를 마련해 영화를 상영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면서 “영화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와 5·18 바로 알리기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3일 개봉한 ‘김군’은 1980년 5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찍힌 한 사진 속 인물을 찾아 나서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사진 속 청년은 군용 트럭 위에서 군모를 쓰고 무기를 들었으며 매서운 눈매를 하고 있는데 극우 논객 지만원 씨는 그를 “북한특수군 제1광수”라고 지목해왔다. /오승지기자

노인복지사업 단체대표 횡령 의혹 수사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노인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 대표의 횡령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남구청으로부터 비영리단체 대표 A씨의 횡령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A씨가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남구청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14억여원의 사용처 등이다. 남구는 특히 이 단체가 운영하는 경로 식당과 노인 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

은 최근 남구청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구청은 이 단체 구성원 사이에 벌어진 다툼 과정에서 A씨의 횡령 의혹을 인지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남구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는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의혹은 수사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며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 단체를 이용하던 노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철현기자

어린이집서 2살 아이 코뼈 부러져 고소

광주북부 경찰, 안전소홀 조사

어린이집 교사 교대시간에 홀로 놀던 어린이가 넘어져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해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2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홀로 놀던 2살 남아아이가 다쳤다. 아이는 어린이집 1층에서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며 혼자 놀다가, 어지러움을 못 이겨 넘어져 TV 거치용 탁

자에 얼굴을 부딪쳐 코뼈가 부러졌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가 다칠 당시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는 근무 교대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측은 “탁자에 보호 장구를 덧대는 등 안전조치를 충분히 해 놓았다”고 해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 안전조치를 소홀한 혐의를 어린이집 측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최환준기자

광주·전남 비·강풍...여객선 결항·농경지 침수 피해

호우 강풍주의보 발효
이번주 초여름 무더위

27일 전남지역 곳곳에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많은 양의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보성·광양·순천·장흥·강진·해남 등에 호우주의보를 추가로 발효했다. 전날부터 오전 11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진도 105mm, 장흥 관산 96mm, 보성 94.5mm, 보성 벌교 91.5mm, 완도 87.2mm, 순천 81.5mm, 광양 73.5mm, 광주 25.4mm 등이다.
여수·고흥·완도에는 호우주의보, 흑산도·홍도에는 강풍경보, 무안·진도·신안(흑산면 제외)·목포·영광·함평·영암·해남·거문도·초도에는 강풍주의보 등이 전날부터 각각 발효 중이다.
바다에는 서해남부 전해상,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남해서부동쪽 먼바다, 남해서부 앞바다 등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정오까지 시간당 2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차차 그쳤다. 해안지역에는 이날 자정까지 시간당 35~65km(10~18m/s)의 강풍이 이어졌다.
항공기는 정상 운항 중이지만, 바닷길은 제주행 3개 항로 3척을 제외한 52개



광주와 전남지역에 비가 내린 27일 오전 광양시 남해고속도로 동광양나들목 인근 국도를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를 뚫고 맞은편 도로로 돌진해 마주 오던 화물차와 충돌했다. 화물차를 뒤따르던 무소 승용차와 쓰레기 수거차 간 추돌 사고가 이어져 네 차량 운전자 모두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구조하는 119대원들. /광양소방서 제공

항로 89척의 여객선이 결항했다.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진도군 고군면 농경지 약 5ha가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한 비와 돌풍 피해에 유의해 달라”며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후 5시쯤 비가 완전히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28일부터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하고 있으며 기온도 점차 올라 이번주 내내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문철현기자

‘사업가살해 후 자살기도’ 조폭 하수인 체포

50대 사업가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 자살 기도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조폭 하수인이 2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에 이번 사건을 주도한 광주지역 폭력조직 국제PJ과 부두목 조모(60)씨의 하수인 홍모(61)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공범 김모(65)씨를 구속하며, 홍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홍씨에 대해 오는 28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홍씨와 김씨는 범행 직후 근처 모텔로 가 수면유도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해 병

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19일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A(56·부동산업)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의 시신을 차량에 태운 채로 경기도 양주시청 부근까지 와서 주차장에 차량을 버리면서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홍씨의 신병도 확보됨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도 A씨 감금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조씨의 동생(58)을 구속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씨에 대한 공개수배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오승지기자

“술이 원수지...”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택시비를 내지 않은 것도 모자라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건이 발생.
○...2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김모(47)씨는 전날 오후 10시12분께 북부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집기를 밀치

는 등 48분 간에 걸쳐 주취상태로 행패를 부린 것.
○...경찰 관계자는 “택시비 지급을 계속해서 거절한 김씨에게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해 무임승차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며 귀가하라고 했으나 귀가치 않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되겠다”고 질책. /최환준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kukje9.co.kr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자매회사: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야외 결혼식

칠순잔치

체육대회

야유회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

CMYK